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주님께서는 당신 포도밭인 교회를 끊임없이 가꾸시어, 가려 심은 새싹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 환영합니다.

- 안식년 중이신 김민철 다니엘 신부님(2005년 서품, 대구대교구)께서 다음 주일(11일)에 저희 공동체를 방문해주십니다.

♣ 모임 / 회의

- 청년 회의 : 10월 4일(주일), 미사 후
- 사목 회의 : 10월 11일(주일), 미사 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99.90€ • 교무금 100.00€

전례 성가

입당 : 329 (미사 시작)

봉헌 : 340 (봉헌)

성체 : 498 (예수여 기리리다)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파견 : 6 (찬미노래 부르며)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4일)	다음 주일(10월 11일)
1독서: 운다해 아멜리아	1독서 : 이나영 로사
2독서: 민재희 세바스티안	2독서 : 김근호 아우구스티노
복 사: 강윤이 스텔라 / 변가인 헬레나	복 사: 정이한 다윗 /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2026년 10월 4일

(녹) 연중 제27주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주 님 의 포 도 밭 은 이 스 라 엘 집 안 이 라 네.

○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 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
○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 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제1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1-7)

1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2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 학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3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 다오!
4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라 말이나?
내가 해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나?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5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 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6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 하고 김매기도 못 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
 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나?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6-9)
 형제 여러분, 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8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9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33-43)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 전체에 정신 건
 강에 대한 사목적 돌봄이 자리 잡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인과 차별을 이
 겨 내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 여부
 와 나이, 신분과 외모에 상관없이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살피 주시어, 인간의 생명인
 배아를 기술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생명 존중 문화를 이루어 가게 하소
 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
 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미사곡 여섯

슈베르트 작곡

미사 시작

329



1. 기 뵈 이 념 처 땔 때 뉘 와 함께 나 - 누 리 슬
2. 당 신 이 아 니 시 먼 그 누 가 빛 을 - 주 리 인 주
3. 부 당 하 온 이 영 혼 주 앞 에 어 찌 - 가 리 주



품 이 가 득 할 때 뉘 게 하 소 연 - 하 리 영
생 은 어 둠 속 에 길 잃 고 방 황 - 하 리 회
께 서 살 피 시 면 결 백 함 있 을 - 런 가 사



광 의 주 우 리 - 게 기 - 뵈 을 주 - 시 - 오 니 서
망 의 주 내 삶 - 의 길 - 인 도 하 - 시 - 오 니 나
랑 의 주 우 리 - 의 뉘 - 우 침 굽 - 어 - 보 사 불



러 운 눈 물 씻 - 고 주 - 님 께 나 가 리
언 제 나 주 안 - 에 평 - 화 를 누 리 리 서
쌍 히 여 기 시 - 어 받 - 아 주 읊 소 서

340

봉 헌

천천히



1. 주 - 우 리 구 - 하 - 고 - 자 십 - 자 가 위 - 에 -
2. 내 - 일 생 모 - 든 - 고 - 난 주 - 앞 에 드 - 리 -



서 - 당 - 신 을 회 - 생 - 하 - 여 성 부 께 - 드 렸
며 - 이 - 몸 을 회 - 생 - 으 - 로 봉 헌 하 - 읊 나



네 이 - 같 이 큰 사 - 랑 이 또 - 다 시 있 으 -
니 거 - 록 히 강 복 - 하 여 반 - 아 들 이 소 -



라 - 나 - 이 제 나 - 를 - 바 - 쳐 망
서 - 일 - 생 을 착 - 히 - 살 - 아 거



극 한 이 - 은 - 혜 감 사 하나 - 이 - 다
룩 한 주 - 이 - 림 현 양 하 리 - 이 - 다



1. 예수여 기리리다 거룩한 사랑 을 빵
 2. 예수여 기리리다 회생된 사제 여 당
 3. 예수여 기리리다 구세주 왕이 여 천
 4. 예수여 기리리다 우리게 오소서 모
 5. 고 통과 슬픔 에 서 너 희 모 두 오 라 하



과 술 그 모 습 에 숨 겨 진 전 능 을
 신 의 살 과 피 로 우 리 신 기 르 심 려
 사 와 성 인 치 들 과 당 이 새 몸 과 마 음 을
 든 것 바 오 리 새 힘 을 주 리 라



오 거룩한 성사 여 거룩한 성사 여 모



든 찬미와 감사 영원히 바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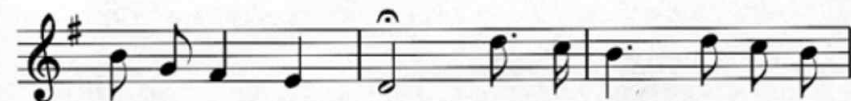
손복희 작사
L. Mason



1. 찬미 노래 부르며 주대 전 떠납니
 2. 나의 형제 찾아서 주대 전 떠납니



다 내 가 가 는 곳 마 다 합 깨
 다 내 가 가 는 곳 마 다 화 목



하 여 주 소 서 하 루 하 루 모 두
 하 게 하 소 서 오 늘 하 루 평 화



를 주 님 앞 에 드 리 며 오 롯
 를 주 님 안 에 찾 으 며 오 롯



한 마음으 로 나 를 봉 헌 합 니 다
 한 마음으 로 주 를 찬 미 합 니 다